

무주군 지역발전사업 '최고'

대통령직속 지방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 삼도봉 지역 행복생활권 활동우수성 인정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협력하고 있는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2015~2017)이 그간의 운영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세 지역은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복합서비스를 운행하며, 산골마을 의료 문화취약 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특히 영화 상영과 건강관리교육, 건강 체조교실을 진행하는 문화버스 외에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을 통해 무주와 영동군의 경계 지역인 오지 영동군 남악마을 주민들에게 식수(상수도)를 공급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천시의 시내버스가 무중면 벽지노선까지 들어가 주민들의 이동을 도와 행정구역 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기획실장은 "시·군별로 따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실효를 거둬가고 있다"며 "이번 수상으로 그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이를 추진력 삼아 삼도봉권역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은 1989년부터 30여 년째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세 지역을 아우르는 민주지산의 삼도봉에서 만나(삼도봉 만남의 날) 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화합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중앙부처 발품행정 최고성과 거둬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248억 확보 진안읍 통합지구 120억원 도내 유일 선정

진안군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신규 공모사업 5개 분야 6건을 신청하여 총사업비 248억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여건 조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낙후된 군정 주요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부처 관계자와 진안출신 관계자 등을 만나 진안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여 얻어낸 성과다.

올해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지구) 120억원,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60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3건에 24억원, ▲원구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원, ▲백운지구 배수개선 사업 26억원, ▲시군역량 2억원으로 총 248억원으로 올해부터 향후 3~5년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기반,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의 성과는 2017년 공모사업을 신청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며, 4년 연속 동일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보기 드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진안읍(통합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0억원 사업비 확보는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 이항로 진안군수의 군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민의 행복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할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선정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5개 분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4곳 선정

산서면, 재공모 결실 제거

장수군이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4개 지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별로 발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준비한 결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장수읍(선도지구 80억원), 산서면(일반지구 60억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계남면 사곡마을·산서면 원흥마을(마을단위 25억원)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산서면은 지난 2015년에 이어

재 공모돼 더욱 값진 결실을 얻게 됐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최대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수읍 일원에 장수행복나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알리미승강장, 보행안전전화기 등을 조성하고 최대 60억원을 투자해 산서면 소재지 일원에 어울림 복합문화공간과 산서시장 활성화, 육영당 학습공간, 안전한 보행환경, 이야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계

남면 사곡마을과 산서면 원흥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투자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내 느티나무 문화센터, 실버 공동생활 홈 신축, 당산나무 행복쉼터, 원흥사랑채 신축, 원흥갤러리 조성, 건강관리실 조성, 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득 군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사용자들의 생활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함께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저비용·고효율 산림 기술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민주지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주지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무주군 설천면과 무중면 일대 국유림(2,664ha)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계획, 고용창출, 저비용·고효율 경영기법 개발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집중관리 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관내 최초로 하베스터, 목재파쇄기 등 고성능 기계장비 시연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숲가꾸기 산물수집 시스템을 토론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하베스터는 나무베기부터 토막내기까지 가능한 전천후 장비를 말하는데 외국의 선진임업국에서는 보편화된 장비다.

이에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영기법을 시도·개발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임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가 읍속마을을 공동급식 현장을 방문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분주한 농민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고 있다.

무주군, 농번기 공동급식 '호응'

일손 덜어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일석이조'

황정수 무주군수가 공동급식 현장을 방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분주한 농민들을 격려했고 있다.

지난 6일 무주읍 읍속마을에 이어 8일 부남면 유동마을에 들른 황 군수는 공동급식소 운영 상황을 둘러보았으며, 점심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모여 든 주민들과 급식소 이용을 비롯한 농사일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농번기 때면 농사일과 식사준비로 가중될 수밖에는 없는 여성농민들의 일손을 거드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일자리가 돼서 모두가 환영하는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운영상의 장·단점을 보완, 개선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밥 준비하는데 쓰던 시간과 비용을 농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다"며 "각자의 논밭으로 흩어졌다가 점심시간이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크다"고 전했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삼락농정 '보람찾는 농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6개 읍면 11개 마을을 선정해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총 사업비 2천 4백만 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청년고용프로젝트 가동

15개 기업 참여·300여명 취·창업 상담 열기 '후끈'

완주군 청년고용프로젝트가 가동됐다.

군은 지난 8일 지역 기업정보 소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주군 우수기업 설명회'를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아시아, (주)오디텍, 하이트진로(주), 한중제약 등 14개 기업이 기업 인사담당자의 기업 소개와 3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취창업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잘 알지 못했던 지역 우수기업의 상세한 소개로 기업정보

를 얻고, 최근 고용현황에 대한 특강시간도 가졌다.

또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고용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인사지원서 작성 방법,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공동체활력과 이찬준 과장은 "그동안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정확하고 많은 제공하여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조금이나마 해소 하였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갈색날개매미충으로부터 과수지킨다

무주군, 농경지·산림 동시방제

무주군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9월 하순까지는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이 유입되는 시기로 밀도를 줄이기 위해 9월 12일까지(중점방제 기간) 농경지와 산림을 대상으로 동시 방제를 실시한다.

해당 지역 농경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주민지원센터가 맡아 방제를 진행하며 농경지 주변 산림과 가로수는 산림부서에서 추진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독작목 담당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무주와 적상, 안성, 부남면 일원 과수와 오미자 과원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한 상태로 군은 그간 조사한 발생상황을 토대로 방제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며 교육과 약제공급을 진행해 왔다.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현장을 찾은 황정수 군수는 "과수에 달라붙어 즙액을 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갈색날개매미충이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돌발해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단맛꿀 농·특산물의 명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장수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일 장계면 일원에서 친환경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수군 그린리더와 공무원 등 30여명은 장계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로 알뜰 장바구니, 저탄소 명절보내기 실천 등 친환경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석선물은 친환경상품 구매는 그린카드, 플러그 뽑고 출발하기, 귀성·귀경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명절음식은 먹을 만큼 구입,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등이 실린 홍보물을 배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추석 맞아 오늘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완주군에서는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9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의 대상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과 군민들의 이동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삼례·봉동·고산 전통시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완주군 공무원을 비롯해 전기, 건축, 소방 전문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 10여 명의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질적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 활동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긴급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장소 등 수습업무, 주요 건축 및 구조물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배전함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소화기 적절한 곳에 비치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 /완주=이종복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사전예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을철 임산물(겨우살이) 채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유산사무소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팀 20명 5개조와 국립공원 자율대인자의 합동단속을 통해 가을철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채취 및 휴면, 취사, 셋길출입, 야간산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상열 자원보전과장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무단채취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 대처로 자연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서 흡삼축제 홍보

진안군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열린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진안흡삼축제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36개국 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140개 단체에서 500명이 참석한 아태지부 지방정부 간 소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진안의 대표축제인 흡삼축제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총회 기간 동안 운영된 진안군 부스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아태지부 지방정부 수장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건강기호식품으로서 흡삼편편, 흡삼차, 인삼주 등 진안흡삼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 모든 흡삼제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흡삼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안=우태만 기자